

AI Fuhr 박사, 전도서, 세션 6

© 2024 알 푸어(AI Fuhr)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카메라 앞에서는 항상 까다롭습니다. 좋아요. 전도서가 흔히 부정적인 평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즐거움은 전도서에서 매우 두드러지는 모티브입니다.

사실 삶의 즐거움은 코헬렛이 다루고 있는 문제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에 대한 일종의 결론으로 제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삶의 즐거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일종의 양면 지혜 동전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코헬렛은 현명한 사람은 내일이 그에게 보장될지, 죽음은 불가피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이 평탄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신 날들을 즐길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의 미래에.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날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행한 일에 보답할 줄을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근신하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의 즐거움을 모티브로 삼는 것은 바로 이 모티브입니다.

우리는 전도서에서 그 탁월함과 전도서에서 그 기능을 탐구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일곱 번에 걸쳐 일곱 번이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후렴은 전도서 2장에서 시작하여 11장까지 책 전체에 흩어져 있으므로 전도서의 한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책 전체에서 그 일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즐거움의 후렴구가 칭찬되고 심지어 코헬렛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된다는 의미에서 확대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은 전도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자 모티프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동시에 삶의 즐거움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나에게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이를 양보적 진술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Kohelet이 여기서 일종의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인생의 즐거움이 전도서의 메시지에 필수적인 것임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들 각각의 삶을 즐겨라의 후렴이 여전히 삶의 무거움의 다양한 측면을 관찰하고 있는 코헬렛의 맥락에서 발견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따라서 이러한 삶을 즐기라는 후렴구가 Kohelet이 먼저 삶의 문제를 다룬 다음 삶의 즐거움에 대한 일종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공간의 일부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즐기라는 후렴구는 실제로 책에 스며드는 무거움의 언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장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첫 번째 삶을 즐기라는 후렴구에서 우리는 삶의 즐거움이 고된 수고에 반대되거나 어쩌면 동반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장과 21절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발견합니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자기의 일, 곧 우리가 전에 본 말씀을 행한 후에는 그것을 버려야 하느니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은 그것을 위해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것도 큰 불행이고 큰 불행이다. 그래서 그것은 무거움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 측면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아말과 애타는 노력으로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의 모든 날과 그의 일은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밤에도 그의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이것도 hevel입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코헬렛은 여기서 긍정적인 진술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코헬렛이 관찰하고 심지어 슬퍼하는 이러한 고된 노동에 이어 다음과 같은 진술을 발견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서 만족을 찾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그분 없이는 누가 먹거나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양보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생에서 찾을 수 있는 최선이라면 인간은 일종의 쾌락적 경험을 따라가는 편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삶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삶의 즐거움은 삶의 무거움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헬렛을 비관주의자로 보지 않고 타락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찾는 현실주의자로 봅니다. 우리는 또한 시간의 불가침성에 대한 담론 속에서 코헬렛이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3장과 9절에서는 사람이 무엇을 얻거나 일꾼이 무엇을 얻습니까? 그의 모든 아말과 그의 모든 수고에서 발견되는 이트론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강의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던 히브리어 단어인 인욘(inyon)이라는 부담, 이런 종류의 제한 부과를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과하신 제한, 부담, 그에 수반되는 모든 복잡성을 보았습니다. 그 중 일부는 실제로 인간 자신의 유한성과 그 너머에 무언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이는 다음 줄에서 제안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고 적절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인간의 마음 속에 영원을 두셨는데, 거기에는 다소 모호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것은 인류가 그분 안에 심어 놓은 현재 너머의 인식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신 일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타락했고 그의 지혜에도 한계가 있는 필사 인간은 하나님, 즉 신성의 활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비추어 코헬레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동안 행복하고 선을 행하는 것, 즉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신의 모든 아말과 수고에서 만족을 찾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코헬렛은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고된 노동과 무한한 시간을 고려하여 코헬레트는 삶을 즐길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미래에 대한 무지가 삶의 즐거움을 촉진하는 것 같습니다.

3장 19절에서 우리는 사람의 운명이 동물의 운명과 같다는 것을 읽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불가피성에 관한 지난 강의에서 그것을 탐구했습니다. 같은 운명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코헬레트는 절망적인 절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자는 이것에 비추어, 이것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기 일을 즐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 heleq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heleq는 부분 또는 많기로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는 저는 실제로 많은 의미로 번역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시 말하면, 헬레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 가운데 있는 은혜의 측면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다시 생각해 보면 타락과 저주로 인해 상황이 암울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인간에게 누림과 성취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고 이러한 기회를 찾아 활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코헬레트는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고, 인간의 미래에는 죽음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속에서도 그런 즐거움을 칭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는 죽음을 향한 궤도에 있지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다. 우리는 또한 전도서 5장에서 탐구하고 관찰한 무거움의 또 다른 측면인 이득의 상실을 발견합니다.

즉, 사람이 무엇인가를 세우면, 무엇인가를 가지면, 무엇인가를 이루는데, 삶의 무거움으로 인해 이러한 것들이 어긋나거나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5장 16절에 보면 이것도 큰 해악입니다. 그래서 무거움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 일종의 부정적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사람은 왔다가 떠나가는데,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는 평생 동안 큰 좌절과 고난과 분노를 느끼며 어둠 속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제야 나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선하고 합당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장과 12절에서 코헬(Kohel) 등은 선한 것을 찾는 탐구를 재조정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이 후렴구에서 이것이 내가 좋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수고하는 가운데 만족을 찾는 것이 선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해 아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생명의 극한 날인 며칠 동안이 그의 몫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삶의 즐거움을 실제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 은혜의 선물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부와 재산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제 몫과 몫을 받아 일을 하며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날들, 즉 지나가는 날들을 좀처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수단과 다양한 상황으로 인한 이득과 손실의 맥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나 능력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8장과 15절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자행되는 불의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즐기는 것이 권장된다는 점을 발견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전에 이 내용을 몇 번 읽었습니다. Kohelet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의로운 사람들이 악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악인이 의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을 때때로 목격한다는 사실에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 이 땅에서 또 다른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의인은 악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악인은 의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습니다. 나는 이것 역시 hevel 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나는 인생의 즐거움을 칭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부에서는 이것을 일종의 양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글썄요, 만약 이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나가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헬렛이 반드시 일종의 쾌락주의적 즐거움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신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의 마지막 한 방울, 어쩌면 최대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나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편이 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러한 불안 속에서도, 심지어 그러한 비천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바보만이 그 기회를 무시할 것입니다. 오히려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즐거움을 칭찬합니다.

그 날이 아무리 짧고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날 곧 우리가 전에 본 그 수고와 아말의 모든 일에 기쁨이 따르리라 BE. 현재로서는 일종의 확률의 지혜이다. 즉, 코헬렛은 삶의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활용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심각성의 맥락과 함께 매우 흥미로운 점은 삶을 즐기다 후렴구가 단지 통일된 문제로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도서 전체에 걸쳐 확대된다는 사실도 발견합니다. 즉, 초기에는 삶을 즐기라는 후렴구가 관찰적인 것으로 보인다. 마치 코헬렛이 그 앞에 놓인 증거를 숙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에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나 능력을 주시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선한 것을 생각하고 추구함에 따라 지혜가 궁극적으로 헤벨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여전히 선한 것을 제공합니다. 그는 현명한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칭찬해야 할 것이 참으로 삶의 즐거움임을 탐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렴구 전반에 걸쳐 확대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2장에서 시작하는 이 후렴 중 첫 번째 후렴에서 2장과 24절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서 만족을 찾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은 없느니라라는 단순한 진술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는 3장과 12절에서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중에 3장과 22절에서 코헬렛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관찰적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나는 사람이 자신의 일을 즐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몫, 그의 재산, 그의 할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는 5장 18절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제야 나는 사람이 일생의 며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로 만족을 찾는 것이 선하고 옳은 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할당이다.

8장으로 넘어가면서 실제로 확대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코헬렛은 8장 15절에서 삶의 즐거움을 칭찬하므로 나도 삶의 즐거움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명령적인 계명이 되는 부분은 9장과 11장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운동은 책 전체에 걸쳐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9장에서 코헬렛은 죽음의 불가피성과 인류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를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숙고한 후, 사람에게 명령을 받은 것은 가서 즐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삶. 그래서 9장과 7절에서 우리는 히브리어 본문에서 명령형을 발견합니다.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시라. 이는 이제 하나님이 네 하는 일을 기뻐하심이니라.

다시 말하지만, 일종의 현재의 지혜신학이다. 항상 흰 옷을 입고 항상 기름을 머리에 바르라. 이 인생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이 덧없는 인생 동안,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인생을 즐겨라.

이것이 당신의 몫이고, 당신의 삶의 몫이고, 당신의 힘든 노동인 아말(Amal)입니다. 해 아래서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네 힘을 다하여 행하라. 네가 들어갈 음부 곧 스올 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그리고 11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확대가 어떤 형태로든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11장 9절에 보면 “청년아 너는 젊을 때에 기뻐 하며 청년의 때에 네 마음을 기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길을 따르든지 네 마음의 길을 따르든지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리라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는 양면 지혜의 동전을 발견합니다. 청년에게는 인생을 즐기십시오. 모든 기회를 포착하세요.

당신이 행한 행위에 대해 답할 것임을 인식하면서 항상 냉철하게 생활하십시오.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피조물로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저주 속에서도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과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긍정적으로 보는 방법에 대한 놀라운 지혜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나서 코헬렛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당신이 행한 행위에 대해 응답할 날을 준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즐거움은 전도서 전체에 일곱 번 후렴에 나옵니다. 구조적으로 말하자면, 이 단어들은 후렴구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나중에 책에 추가된 일종의 정렬이나 아마도 양보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Kohelet의 일종의 보조 요소로서 단순히 정렬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책의 핵심 메시지에 통합되고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제 약간의 시간을 내어 이러한 삶의 즐거움의 특성 중 일부를 탐색하려면 우리가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일종의 경박함 맥락에서 살펴본 명백한 확대를 넘어서는 몇 가지 문구를 참조하십시오. 당신이 인생을 즐기라는 자제들 안에 있는 스톱 문구나 용어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물론 기쁨입니다.

여기서 Simcha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제 이것은 상당히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 약 275회 나옵니다.

심차(Simcha)는 구약성서의 축제 텍스트와 관련하여 발견되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이 고대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 절기를 지켰을 때,

여러분은 기쁨이 그 절기를 동반했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심차(Simcha)는 고대 이스라엘의 축제 패키지의 일부였습니다.

또한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또는 아마도 찬양의 시편에서 왕을 찬양하는 곳에서, 당신이 얻게 될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심차(simcha)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세계나 고대 이스라엘의 삶에서 행하고 계신 일과 관련하여 추수감사절에 주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동반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구원의 신탁과 회복 언어를 말할 때,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회복 활동에 수반되는 일들을 언급하기 위해 때때로 심차(simcha)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 가운데, 포로 생활의 모든 환난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겪은 모든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치셨고 나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국 분열 시대에 있어서 선지자들이 회복에 관해 말할 때 그것을 축하의 때, 축제의 기쁨의 때인 심차와 연관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는 단지 즐거움이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단어와 관련하여 발견하는 것은 단지 경건한 종류의 종교적 기쁨의 축제나 일종의 성스러운 기쁨이 아닙니다. 실제로 잠언 5장에는 전도서의 『인생을 즐기라』에서 아내에 관한 진술이 여기서 후퇴하는데, 심차여, 네 샘으로 복을 주어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젊음.

그래서 젊었을 때의 아내와 함께 축하하는 데에는 종교적인 요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과 마찬가지로 이 단어의 능력은 종종 함께 포장되어 다양한 의미와 아이디어를 내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인생을 즐기라는 후렴구의 맥락에서 그것은 시편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기쁨에 대한 일종의 종교적 존경심도 아니고 일종의 쾌락주의적 쾌락도 아니라는 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엔조이 라이프(Enjoy Life)의 핵심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단순한 즐거움입니다.

인간이 심차(Simcha), 즉 기쁨을 찾고 경험해야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당신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주신 기쁨의 몫, 즉 헬레크(heleq), 즉 할당량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인류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21세기인 이곳에서도 세상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만약 코헬렛이 오늘날 살고 있다면 그가 했던 방식으로 4장을 집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위로자가 없다는 말씀을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의 난민을 생각하고, 가난 속에서 고통받고 수고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합니다. 육체적 질병, 그리고 삶의 그러한 경험에서 기쁨이 추론되는 것을 보는 것은 확실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주와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생각할 때, 다시는 그러한 질병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지만, 지옥의 세상에 사는 현재의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방금 나가서 멋진 점심, 찐 야채를 곁들인 훌륭한 샌드위치를 먹었다는 것이 나에게 놀랍습니다. 디저트를 먹었다라면 심차가 좀 더 많았을 텐데, 영양가가 매우 높은 식사를 했고, 정기적으로 그런 음식을 먹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심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습니까? 산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누릴 기회가 있습니까? 나는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코헬렛이 그것을 좋은 것으로 보고, 지혜를 그러한 것들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의 경험으로 확실히 맥락화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문학에서 경건하기 위해 모든 것이 반드시 종교적일 필요는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공급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경험,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속적이거나 규범적인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도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서라도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코헬렛은 현명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발견할 것이고, 현명한 사람은 그러한 기회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Simcha는 Enjoy Life 후렴에서 찾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이다. 우리는 이러한 후렴구 중 일부에서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라는 문구로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인 토브(Ein Tov),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있다는 생각, 그리고 물론 우리가 좋은 것을 찾는 코헬렛의 탐구의 일부를 이해한다면, 험난한 세상에서 좋은 것을 찾는 데 어떤 지혜가 제공될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진술로 소개될 때 이러한 자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다시 2장에서 반복하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에서 만족을 찾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나는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그리고 Ain Tov,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후렴은 현재 경험의 일부인 수고, 망치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음을 추가로 암시합니다. 이제 창세기 3장을 다시 생각해 보고 가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벌의 일부로 일을 창조하셨는가, 아니면 일의 무거움을 느끼시는가? 내가 보기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일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가을로 인해 좌절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은 농부들이 땅을 경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경작하고 수확할 농작물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나서 그들의 노동의 결실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가뭄이 들어서 그들의 수고가 모두 헛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양한 살충제와 농약이 사용되기 전의 고대 상황을 생각하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 있는 비료와 관개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고대인들이 무엇을 다루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수고하고 받을 갈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소를 몰고 일을 했을 것이지만 그들 역시 분명히 그 일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 아래에서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노력이 완성되는 열매를 맺었습니까? 때때로 그들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메뚜기 재앙, 가뭄, 홍수. 그래서 우리는 수고 그 자체와 노동(amal)이 다소 중립적인 용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루함 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너무 자주 수고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대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대학생들로부터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이 논문을 제출해도 될까요?라는 이메일을 자주 받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삶의 소중함 때문입니다. 때로는 학생들이 훨씬 더 미리 수행했어야 할 과제를 미루는 것은 단지 학생들의 방치일 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합법적인 일이 인생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런 것에서 약간의 은혜를 찾습니다. 품질이 좋은 것을 생산하기 위해 그들이 들이는 노력이 반드시 나쁘거나 실망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몇 주 동안 논문을 작성하면 정말 좋습니다.

뭔가 기여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당신은 뭔가를 배웠고 그 논문을 제출하기를 기다릴 수 없으며 개가 그것을 먹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구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스틴의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비참함은 계속해서 일반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나가서 차를 사다가 다른 사람이 그 차에 달려드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는 자동차 여행을 떠나다가 자동차가 도중에 고장이 나서 큰 혼란과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을 발견한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생에서 무거움 에 대한 경험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것은 망치도 아니고, 반드시 나쁜 수고 도 아닙니다.

사실 남자가 자신의 노동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고, 여자가 자신의 노동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심차(simcha)를 추정합니다. 우리는 기쁨을 추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받을 수 없거나 경험할 수 없거나 어떤 어리석은 이유로 하나님의 선물인 그들의 노동의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등한히 할 때, 그때 우리는 완전히 실망스럽고 통통한 악,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코헬렛이 말한 것은 심지어 삶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노동에 대한 만족은 삶을 즐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나는 또한 할당에 대한 아이디어인 heleq가 전도서 연구와 인생을 즐기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제 헬레크라는 단어는 전도서에서 여덟 번 발견되는데, 인생을 즐기라는 후렴 속에 네 번 등장합니다. Enjoy Life 후렴에서 heleq 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는 네 가지 예를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3장 22절에서 나는 사람이 자기 일, 그의 아말을 즐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또는 그것이 그의 헬레크 이기 때문입니다.

NIV가 번역한 대로 그의 운명은 다른 번역본에도 일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짐인 것처럼 그것은 단지 그의 운명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Kohelet이 사용하는 inyon이라는 단어를 이전에 본 적이 있지만 Kohelet은 이 문맥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당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무거운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또한 5장 18절과 19절에서 룯(heleq)이라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며칠 동안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와 수고로 만족을 찾는 것이 선하고 합당함을 깨닫 노라. 이것이 그의 몫이다. 우리는 여기서 즐거움 자체를 일종의 할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부와 소유, 곧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것을 즐기게 하여 그의 제비와 은사와 인생의 몫을 받아들이고 그의 일에서 기뻐하게 하실 때, ,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진 몫과 일, 이것들은 여기에서 인생을 즐기는 동반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애에 대해 좀처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장 후반부에는 인생을 즐겨라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명령적인 계명, 지혜의 계명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이 천국의 모든 날 동안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이것이 네 생명의 일 이요 인생의 분깃 이니라

낮은 심판 가운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고려하여 지혜를 통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능력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즐기라는 후렴구는 전도서의 메시지에 필수적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삶의 즐거움은 일종의 쾌락주의적 추구가 아닙니다. 죄를 즐기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누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고방식과 태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즐거움의 기회로 본다면 코헬렛은 그것이 현명하고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는 현명한 태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어차피 집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면, 그것이 헛되다고 보기 위해 부와 쾌락을 축적하는 문제라면, 그것을 하나도 남기지 못할 만큼, 누가 뒤따르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축적하는 과정을 통해 기쁨도 심차도 찾을 수 없다면 코헬렛은 그 사람을 바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삶을 누릴 수 있는 현재의 가능성을 매우 많이 포용합니다.